

사설

한 표가 미래 결정

18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나 유권자나 모두들 마음이 바쁘다. 지금의 사회적 형편도 도산하는 기업이 많고 또 국가적인 경제위기가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을 막대하게 빌려야 할 처지에 직면하고 있으니 겨울날씨 만큼이나 스산하다. 자연히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정치 경계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만든 주범과 공범이 누구인가를 성토했고 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내가 이런 경계를 망친 사람이라고 자상하는 사람도 없고 더욱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다.

심지어 유권자들 가운데는 자포자기적인 자기비하의 한탄을 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번 선거에서 표를 모아준 개혁의 이미지가 물거품처럼 사라진데 대한 배신감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자신의 선택이 미숙했다는 데 대한 자조적인 반성도 섞여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런 기준의 강화는 결집되면 시민정신으로 응축될 수 있다.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선택한 후보자가 국정을 약속대로 잘 해 나가고 있는가를 지켜보는 감시자로서의 권리가 함께 지닌다는 인식을 깊이있게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선택한 결과가 선택한 사람에게 되돌려진다는 자업자득의 인과법칙 속에 우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전이격적인 면을 갖추고 있기를 소망하지만 그런 사람은 이미 없는 것이다.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서 골라야 하는 제한점이 있다. 외국처럼 정당정치가 뿌리를 내린 그 정당이 꾸준히 지향하고 있는 통치이념과 철학 그리고 추진력을 참고삼으면 되겠지만 알

다시피 우리나라의 정당이란 것이 오합지졸로 아직은 그런 선진 입장에 서있지 못하다. 그런 정당을 보고 이상적인 정당이 있다면 찍을텐데... 하고 염원을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지금의 형편이 우리 수준이란 것을 직면해야 한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보다 전진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누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있게 살펴보는 뜻이다.

첫째, 우리 자신의 감정적인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보다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판단해 보자. 현실을 직시하여 가깝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를 이성적으로 살피고 판단해 보자.

둘째, 직업적인 문제보다 전체적인 흐름, 특히 세계속에서의 한국을 인식하는 수준에서 찾아보자.

셋째, 후보에게 기대하는 것을 중세식 이상모형을 찾기 보단 지금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좁혀서 생각해 보자.

넷째, 자신이나 자기 주변의 여러 조건들을 앞세운 이기적인 것보다는 보다 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이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후보를 선택해 보자.

다섯째, 투표에 꼭 참여하자. 투표할 하나하나한데 해서 무엇하나 하는 패배적인 생각을 접고 투표권을 가진 누구도 참여하여 한표를 행사하는 자세를 가져보자. 30%도 안되는 지지율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진정한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표를 의식하여 표만 된다면 무슨 공약이라도 남발하는 후보자가 유권자를 무섭게 알도록 만들자면 유권자의 잭대가 뚜렷하고 확고해야 한다. 잭대가 뚜렷하고 확고하다면 미래의 시민의식이 건강할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회창후보는 8일 부산 코모도호텔로 월주 스님을 찾아가 '파계승 탈' 파문에 대해 사과했다.



이회창 불교모독 규탄법회 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규탄법회를 갖고 이회창의 대선 법정홍보물을 소각했다.

“‘파계승 탈’은 불교모독”

승·제가단체 이회창후보 공개사과 요구 한나라당, 사과광고 등 불심달래기 부심

한나라당이 이회창후보의 대선 법정 홍보물에 거짓말과 속임수의 상징으로 '파계승 탈' 사진과 문구를 사용하면서 일기시작한 파문이 11일 한나라당의 한국일보 사과광고 게재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교계 20여 단체로 구성된 '이회창 불교모독 규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회창의 직접 사과 및 전체 일간지·방송·불교계 언론을 통한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13,14일 예정된 이회창 규탄법회를 조계사에서 열기로 했다. (11일 현재)

○... '파계승 탈' 파문은 12월 초, 부재자 투표를 하게된 전국의 선방스님들이 먼저 법정홍보물을 받아보면서 촉발. 승가단체와 청년회를 중심으로한 교계 13개 단체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어 조계사에서 시위하고 '파계승 탈' 홍보물을 소각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김태호 사무총장 명의의 사과문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에게 전달하고, 이어 조순총재가 김총장을 대동하고 조계사 대웅전을 찾

아 월주스님에게 사과하는 등 파문의 조기진화에 적극 나섰다. 부산 유세중이던 이회창후보는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법회중인 월주스님을 예방하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홍보물 제작대행사의 대표가 불교계 각 언론사를 방문하고 사과해명에 나섰다.

○... 불교비상대책위는 이회창의 언론을 통한 직접 공개사과 외에는 어떠한 해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 이에 10일 조계종지도자대회와 11일 조계종 민족문화회 수호하는 교구본사주지 모임에서도 같은 입장을 촉구 결의했다. 그러나 월주스님은 조계종지도자대회에서 "14일 대통령후보TV토론회에서 이회창이 공개사과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회창의 공식사과를 인정했다.

○... 이회창후보는 '파계승탈' 파문의 공개사과 장소로 해인사를 선택. 10일 해인사를 방문해 대웅전에서 사과예불을 하고 주지스님 예방과 기자회견도 계획한 것.

그러나 불교비상대책위는 공개사과 후 사찰참배를 내세우며 '방문사절' 방침을 통보했다. 이회창의 해인사 방문 당일 강원 화인들이 일주문을 막고 출입을 저지했다. 해인사방문이 무산된 이회창은 산내 김상암을 참배 주지 명진스님에게 사과했다. 이회창은 천주교 신자로 종교는 달라도 합장하고 예불 및 탑돌이를 하는 등 불심달래기에 부심했다.

한나라당은 11일 한국일보에 사과문을 내고 "본의아닌 실수로 물의를 일으켜 불교계에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며 "이번 파문을 계기로 종교의 존엄성을 지키고 불교를 비롯 종교계의 발전을 위해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계승탈' 파문은 한나라당이 밝힌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 해도 '승보(僧寶) 모독'이라는 민감한 사안으로 급속히 교계로 확산됐다.



파계승 탈

◇물의를 일으킨 이회창후보의 대선 법정홍보물.

김정은 기자

전국경제신문

737-8881

현대만평



직장법회도 IMF 한파

'파계승 탈' 파문일지

- ▲12월 5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교계단체 긴급대책회의, 성명서 발표
- ▲12월 6일 △교계 13개단체 공동기자회견(조계사 불교회관 1층) △한나라당 김태호 사무총장 사과문 발표 △효림스님, 조계사 청년회원 등 1백여명 한나라당 당사 항의방문
- ▲12월 7일 △한나라당 조순 총재·김태호 사무총장 등 조계사 방문, 총무원장 월주스님에게 사과.
- ▲12월 8일 △교계 단체 '이회창 불교모독 규탄 비상대책위원회(준) 회의. 9일 낮12시까지 이회창의 공개사과 및 사과광고 게재요구 △이회창 후보 부산 코모도호텔로 월주스님 방문, 사과 △조순 총재 부산법회에 참석, 사과 △대불칭·태고종 전국신도회·한국불교청년회·조계종 인

천사암련 성명서 발표

- ▲12월 9일 △'이회창 불교모독 규탄 비상대책위' 기자회견 △이회창 후보의 방송과 언론 통한 직접 공개사과 재촉 △조순 총재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방문, 사과 △조계사 법당 '이회창 불교모독 규탄 대법회' △대웅전 앞 이회창 후보의 법정홍보물 소각식 △'이회창 허수아비 화형식' 갖고 밤 10시경 해산 △대불련 대구경북 지부 성명서 발표
- ▲12월 10일 △이회창 해인사 방문. 강원스님들의 저지로 무산 △이회창 김상암 방문, 명진스님에 사과
- ▲12월 11일 △한나라당 사과광고 일간지에 게재 △비상대책위, 사과 미흡하다며 지속적인 규탄운동 전개계획 발표 △조계종 본사주지모임 시정 촉구 결의.



◇6일 교계 20여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회창후보의 방송, 중앙일간지 및 교계언론을 통한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사과의 말씀

저희 한컴은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홍보물을 만든 광고 대행사입니다. 우선 저희가 만든 홍보물로 인해 저희의 의도와는 달리 전국의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결코 특정 종교에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나라를 어려움 속에 빠뜨린 일부 구정치인들의 거짓과 위선을 기면이 갖는 상징성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을 뿐 결코 불교계를 비하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뜻은 홍보물의 앞뒤쪽을 연계하여 살펴보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본의와는 달리 전국의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을 사과 드리며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1997.12. 한 컴